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1~4월 상품 및 서비스 소비 규모 3.2% 증가

- 상무부 소비촉진사(司)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소비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 친환경·스마트 제품 소비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고도화
 - 1~4월 상품 및 서비스 소비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이 중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1.9% 증가, 서비스 매출은 5.6% 증가
 -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정책, 복권형 영수증 발급, 출국 시 세금 환급 등 소비 진작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안경, 휴대용 촬영기기, 스마트 혈당측정기, 1등급 에너지효율 세탁기의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9배, 26.9%, 12.3%, 10.4% 증가,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61.4%를 기록하며 최초로 60%를 돌파

〈징둥닷컴 플랫폼 인기 상품〉

스마트 안경 (Rokid AI 안경)	휴대용 촬영기기 (DJI Pocket 3 카메라)	스마트 혈당측정기 (Roche 혈당측정기)	1등급 에너지효율 세탁기 (Haier 통돌이 세탁기)
			

- 1~4월 서비스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5%p 상승, 이 중 요식업 매출은 3.8% 증가, 관광상담·임대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 문화·스포츠·레저 서비스 매출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 ‘중국에서 쇼핑(购在中国)’ 캠페인 추진으로 외국인 소비도 증가
 - 1~3월 관광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3% 증가했고, 1~4월 광저우, 선전, 상하이, 베이징시의 세금 환급 적용 상품 판매액은 각각 186%, 145%, 65%, 45% 급증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2 中, 신형 전력망 등 '6대 인프라망' 건설 투자 본격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 25일 수자원망·신형 전력망·컴퓨팅 인프라망·차세대 통신망·도시 지하관망·물류망 등 '6대 인프라망' 건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 특히 신형 전력망과 도시 지하관망 건설을 핵심 투자 분야로 지정
 - 신형 전력망에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5조 위안(한화 약 1,111조 원)을 투입하여 송전 통로와 성(省) 간 전력 상호 지원, 권역별 초고압 전력망 최적화, 도시 배전망 고도화 사업, 농촌 전력망 정전 문제 개선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중국의 도시 지하관은 2025년 말 기준 총 390만 km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 이에 따라 도시 지하관 중 가스·상하수도·난방 등 총 77만 km를 신설·개조하고 취약 부분을 신속히 보완할 예정
 - 한편 '6대 인프라망' 외에도 정책자금과 민간투자를 결합하여 입체 교통망·저공경제·인공지능+·공공서비스·소비 등 분야의 대형 인프라망 건설을 추진할 계획
 - *저공경제 : 드론, 수직이착륙기(eVTOL), 도심항공교통(UAM) 등 저고도 공역을 활용한 항공기 제조·운항 서비스·물류 배송·관광·응급구조·인프라 관리 등을 포괄하는 신산업 분야
 - *입체 교통망 : 도로·철도·항공·수상·우편·택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층층이 연결해 이동 경로를 '입·출·환승'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 교통체계

자료원 : 인민일보

3 中, 통신·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 개방 확대 추진

- 상무부는 5월 26일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와 장기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
 - 향후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완비하고 통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며 부가가치 통신, 바이오 기술, 외국인 독자 병원 설립 등 분야 개방을 시범적으로 추진
 - 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 디지털무역 시범구 등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여 외자기업의 중국 서비스업 발전 혜택 공유를 도모
 - *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구 : 과학기술·금융·통신·문화관광·의료·교육·교통운수 등 서비스업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시범구. 현재 베이징, 텐진, 선양, 다롄 등 20개 지역에서 시범구를 운영
 - *국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 : 디지털무역·금융·문화·의료·정보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

력 강화를 추진하는 시범구. 현재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등 17개 지역에서 시범구를 건설 중이며, 2035년까지 35개 시범구를 건설할 계획

***국가 디지털무역 시범구 :** 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AI)·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등 차세대 디지털무역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시범구. 2026년 1월 상무부에서 시범구 건설을 발표

-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외자기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 한편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전면 시행하고 서비스무역·친환경무역·디지털무역 등을 위주로 신산업·신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유리한 혁신 조치를 실시
-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2025년)’에서는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친환경·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및 첨단 제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

자료원 : 경제참고보

4 1~4월 규모 이상 원자재 제조업체 이윤 88.1% 증가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규모(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88.1% 증가, 증가율은 1~3월 대비 10.2%p 상승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 산업공급망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석유가공업은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404억 위안(한화 약 9조 원)의 이윤을 달성하였으며, 화학공업 기업 이윤은 73.4% 증가, 증가율은 1~3월 대비 18.9%p 상승
- 신에너지, 인공지능(AI), 차세대 정보기술 등 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알루미늄·구리·금·리튬 등 비철금속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비철금속 기업 이윤은 117.8% 증가

자료원 : 중국상보망

5 1~4월 전자전용 소재 제조업 등 기업 이윤 급증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규모(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첨단기술 제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44.8% 증가하는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제조업 성장 견인 역할이 지속
-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전자전용 소재 제조업, 광섬유 제조업, 광전자 부품 제조업 기업 이윤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1.7%, 347.6%, 51.0% 증가
- 공업 생산 자동화·지능화 관련 업종 이윤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업, 테스트 장비 제조업, 산업용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업 기업 이윤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

- 의료산업의 질적 성장에 따라 치과용 장비·기기 제조업, 의료용 소모품·의약품 제조업 기업의 이윤은 각각 25.0%, 24.0% 증가

자료원 : 베이징상보망

6 1분기 전동 이륜차 수출 68.2% 증가한 720만 대 달성

- 해관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확대와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1~3월 중국의 전동 이륜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2% 증가한 720만 대를 달성
- 4월 30일 종료된 중국제조망(中国制造网, 무역 B2B 플랫폼)의 ‘슈퍼 해외진출 시즌(超级出海季)’ 행사에서 전기자전거는 중공업 분야 주문량 순위 1위를 기록
 - 또한 미국·브라질·러시아·아르헨티나·멕시코 등 5대 핵심 시장의 유망 상품 선정 리스트에서도 전기자전거와 전동 오토바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며 주요 시장의 공통 선택 상품으로 부상
- 최근 국제 유가 고공행진으로 아르헨티나·브라질·필리핀 등 신흥시장의 내연기관 이동 비용이 상승하자 유지비가 오토바이의 1/20에 불과한 전동 이륜차가 대체 이동수단으로 부상
- 현재 전 세계 전동 이륜차 생산능력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었으며 성숙한 산업 클러스터와 B2B 플랫폼, 해외창고 등 무역 인프라의 고도화는 전동 이륜차의 수출 확대를 견인
- 올해 3월 ‘신삼양(新三样, 태양광 패널·배터리·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했으며, 전동 이륜차의 수출 증가는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중국 주요 전동 이륜차 생산업체〉

브랜드명	로고	설립연도	소재지	회사소개	제품 사진	웹사이트
YADEA (雅迪)		2001	장쑤성 우시	100개 국가 대상 전기자전거, 전동 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등을 수출, 고객 1억 명 확보. 연구개발자 1,000명, 연구개발센터 6개, 매장 4만 개 운영		www.yadea.com
AIMA (爱玛)		2006	텐진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삼륜차 등을 생산. 2024년 10월 기준 회원 2,600만 명, 생산량 1,000만 대 돌파		www.imatech.com
TAILG (台铃)		2004	장쑤성 우시	전기자전거, 전동 오토바이, 전동 삼륜차 등을 생산. 장거리 주행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생산기지 및 해외거점을 확장		www.tailg.com

자료원 : 통화순(同花顺)